내가 가질 수 있는 혁명적인 보물 두 가지

(골2:1~7)

1.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4.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5.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혁명적인 보물 두 가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보물, 아무도 갖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꿈같은 이야기가 돼버려서 보물을 내가 갖게 된다는 것은 그냥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보물을 가졌으면… 보물을 발견하면… 이라고 하는 소망조차도 불필요한 소모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물이라고 그러면 맨날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이고 소설이나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가 간신히 판독해낼 수 있는 먼지가 푹푹 나는 아주 오래된 보물지도를 통해서 보물을 찾는다, 그리고는 결국 주인공이 나라에 보물을 바치는 그런 식 아닙니까?
그리고 또 카지노 같은 곳에서 잭팟이 터졌다, 실지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일반인들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때는 꿈같은 얘기죠.
또 남대문이 국보 1호고 동대문이 보물 1호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는 것이고, 혹시 일본 관광객이 남대문 밑에서 도시락 까먹고 휴지를 거기 버리고 가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솔직히 그게 피부에 와 닿는 보물이라는 느낌은 안 들지 않

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가질 수 있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누구나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물입니다.
그 보물 됨이 얼마나 강렬한지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의 여의주 같은 겁니다, 그거만 들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혁명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전복시키는 겁니다, 국가체제나 사회제도를 전복시키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고 살고 있는 상식이나 관습 풍습 같은 것을 전복시키든지, 하여간 전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판에 뒤집어엎는 그게 혁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물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뒤집어엎어집니다.
뒤집어엎어진다는 게 꼭 나쁜 뉘앙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lucky 한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마 골로새교회를 신앙적 사상적으로 위협하는 이단사상들이 골로새 도시 안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왜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럴 필요가 없고 진짜 보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쫌 아쉬워요, 그리고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보화는 보물을 말하는 건데, 어차피 예수님 믿게 돼서 얻는 보물이라면 그냥 지혜나 지식 같은 그런 보물 말고 진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보물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왜 보물일까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라는 보화가 있다고 그래도 우리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다이겁니다.
무슨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야, 대단하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보물이라고 그러는데도.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도.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경험해본 적도 피부로 느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우선 급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 아니잖아요?
지혜와 지식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발등에 떨어진 급한 문제부터 숨통이 돌리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급한데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고 있자니 답답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그냥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화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바울에게는 값이 치솟는 주식도 보화가 아니고 다이아몬드반지나 진주목걸이 이런 게 보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좀 더 고상하게 마네나 모네, 드가, 고호, 이런 사람들의 작품이 보화인 것도 아니에요, 남대문 동대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바울이 실없는 얘기를 했을 리는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로서의 지혜는 대체 뭘까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다 아시죠?
하늘이 있고 공중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주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암흑 같은 공중에 뚫어놓으신 빛의 터널이 있습니다.
하늘의 빛이 쏟아지는 곳이에요.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 공간에 머물게 됩니다.
아직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는 않지만 하늘빛이 쏟아지는 곳입니다.
하늘빛이 쏟아진다는 것은 하늘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어떤 순간에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만났으면 내일도 저절로 만나지는 게 아니라 내일도 십자가에서 죽어서 주님이 만들어놓으신 주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지혜는 뭡니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만난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오는 게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상태에요.
먼저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들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지혜에요.
근데 그게 뭐 그리 혁명적인 보물이냐?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영도를 따라서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바란 광야의 바데스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탐을 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파마다 12명이 정탐을 하고 40일 만에 돌아왔어요.
바데스에서 정탐 보고회를 하는데, 여러분 다들 아시는 대로 열 명이 '가나안에 이미 정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다, 특히 네피림 자손 중에 아낙 대장부들은 그들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렇겠지요, 자기들은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가나안은 이미 철기문화가 정착돼서 국가체제를 완비하고 있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사막을 막 지나온 이 오합지졸이.
그러므로 열 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이나 척도나 관점, 상식으로 볼 때 너무나 객관적이고 솔직하고 정직한 보고라는 겁니다.
뭐, 무기가 있습니까, 군대가 따로 있어서 나라를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까?
나라로서 영토를 갖고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객관적인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보고는 너무 허황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허황된 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혁명이죠, 혁명.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점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처럼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나안의 거대한 아낙 대장부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아낙 대장부들을 봅니다, 내 밥입니다.
그렇게 허황된 것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봄으로써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혁명적인 거죠.
열 명이 갖고 있었던 관점은 상식적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지상정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엎어버리니 혁명적이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가나안 사람들을 봤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 하나님을 먼저 못 본 사람들의 삶을 뒤집어엎어버립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에요.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를 살아계신 분으로 먼저 만났습니다, 그분을 먼저 만나고 골리앗을 보니까 그냥 이건 할례 받지 못한 개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여호와하나님이 만군의 주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진짜 그분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골리앗을 보니까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또,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곧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십니다.
그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신 채로 풍랑이 오니까 그 속에서 잠을 잡니다.
혁명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다 몰살당하고 말 것이라'는 그 현장 속에서 잠을 주무시는 이게 혁명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는 골리앗 같은 재정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낙 대장부들이 나를 대적하는, 예를 들어 회사에서 과장님이 나를 괴롭히고 사장님이 눈총을 주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지혜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그 과장님과 사장님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십자가에서 사장님에게 가있는 내 마음을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 죽이지 않는 한 하나님은 만날 수 없으니까.
마음을 다 드리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 없으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이것 자체가 혁명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는 울분과 억울함,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나와요, 이게 혁명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가 없는 게 문제인데,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 번 만 번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웁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죄 사함의 사건으로만 국한시켜버리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아서 의롭다 함을 얻은 다음에는 전부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으니까 이 세상 것은 아무거나 다 구해도 되는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죄 사함에만 국한시키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단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기독교의 부패가 다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고 죄 사함에만 국한시키는 데서 모든 기독교상의 부패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날마다 재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틴루터는 이것을 그대로 Daily Baptism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Baptism 의 예식은 한 번만 있으면 되지만 그 세례의 의미와 중요성은 우리가 사는 동안 끝까지 지속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례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 죽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 만들어진 빛의 나라로.
그곳에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정문제를 만나면 목사님들이 철야기도 하라고 해요.
철야기도 하면서 마음이 온통 재정문제에 다 쏟아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골리앗 같은 재정문제, 아낙의 대장부 같은 재정문제, 풍랑 같은 재정문제, 스테반에게 있어서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같은 그런 모든 문제들,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지혜라는 보물이 없기 때문에.
그 보물만 있으면 혁명적으로 나의 상황은 전복돼버립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도 상황이 전복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혁명이죠.
그러니까 돈 문제가 생기면 먼저 돈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부터 생기게 해야 돼요, 지혜가 생기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십자가에서 돈 문제에 대해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묘하지요?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십자가에서 돈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죽고, 돈 문제에 끌려가던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돈 문제를 보면 이상하게도 다윗 앞에 골리앗이 돼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앞에 아낙 자손이 돼버립니다.
예수님 앞에 풍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딴 것 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라볼 때 지혜가 생기는 거라면, 지식은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할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본래의 하나님 관점에서의 의미가 드러나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지식은 감추어졌던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우리들에게 속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서론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 말씀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만물이 다 만들어졌느니라'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사색의 결과가 아닙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그 예수님 따라서 마음이 같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니까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육신이 되신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사신 것이 다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말씀답게 되려면 육신이 되신 말씀에 근거가 돼야 돼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주님께서 만들어놓으신 그 빛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역으로 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십자가를 경험한 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위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던 분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서 하늘과 공중과 땅이라고 하는 3층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3층 구조, 여러분 24시간 뉴스를 들어보세요, 이 말이 나오는지, 서울대학 모든 과의 모든 강의를 1년 내내 들어도 단 한 마디도 하늘과 공중과 땅이라는 3층 구조나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했어요, 만물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예수님이 프리즘 같아서 하나님아버지가 아들 되시는 그분을 향해서 보내시는 사랑이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예수님 뒤쪽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건 사색의 결과가 아닙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대하고 만물을 대할 때 나타나는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들은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혁명을 감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땅을 변화시켜서 다른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도를 바꾸고 체제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지식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내 삶의 형편을 그대로 놔둔 채로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줍니다.
그 나라에 대한 지식이 우리는 거의 제로상태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지 않고 있으니까.
전부 마음이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잠긴 채로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큐티가 위험하다니까요, 큐티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사업에 마음이 잠겨있으면서 성경을 봅니다.
사업에 대해서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승천을 통해 만들어놓으신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모든 상황들이 내게 지식으로 전달 될 텐데,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채로 자식에 마음이 잠겨있는 채로 성경을 보니까 사업에 관계 되는 말씀을 앞뒤 다 잘라내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아무데나 다 갖다 붙여버리는 겁니다.
즉, 마음이 그리스도 밖, 이 세상에 머물면서 성경을 보니 1독 하면 뭐하고 10독 하면 뭐하고 성경을 100독 하면 뭐해요?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왔는데.
이 어령 씨가 믿기 전에 성경을 인용한 걸 보면 그 석학께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피력한 걸 보면 우스워요, 너무 그릇되었으니까.
그분의 작품 전집들을 보다보면 가끔 성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을 읽고 당신 나름대로 해석한 것들이 우스꽝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믿게 되었으니까 그걸 아실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이게 진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내가 죽으면 갈 거로만 알고 있지,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요즘 우리가 말한 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 아버지의 사랑이 끊임없고 아들의 사랑이 끊임이 없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연장선상에서 예수님 뒤쪽으로 만물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인간만은 예수님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대면하도록 요청받은 특권적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다 지식이라는 겁니다.
만물이 그렇게 생겼는가를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볼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읽다보면 그 안에 내가 가져야 될 하늘의 보화들, 하늘에서 내 것으로 준비된 내 명의로 된 모든 보물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마음이 잠긴 채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무슨 처세술을 가르치거나 사업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인 김 동호 목사님께서 성경적 경제학 책을 저술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겠습니까?' 한 마디 했어요.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밴쿠버에 오셨을 때 시간 날 때마다 성경적 경제학 책을 쓰신다고 따다다다 타이핑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돈 벌기 원한다고 해서 경제학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이 자녀 잘 키우기 원한다고 해서 좋은 아빠 되는 법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아빠라는 신분에 대해서 죽게 가르쳐야 돼요, 돈 벌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죽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에 의해 뺏기는 마음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같이 보게 함으로써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하늘나라를 갖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이 있음으로서 하늘나라를 갖게 되거든요.
그걸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교묘한 말로 자꾸 교인들을 오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교묘한 말이 뭡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 모든 말이 다 교묘한 말입니다.
나 자신을 속이고 교인을 속이는 교묘한 말들입니다.

여러분, 3장까지 그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2장 3장 통과하는 동안에 확실히 내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혁명적인 보물들을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봄으로 지혜를 갖게 하시며 말씀을 봄으로 지식을 얻게 함으로써, 진짜 보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